

최근 말레이시아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내용과 시사점

김유미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ymkim@kiep.go.kr, Tel: 3460-1075)

차 례 ●●●

1.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제소 현황
2.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내용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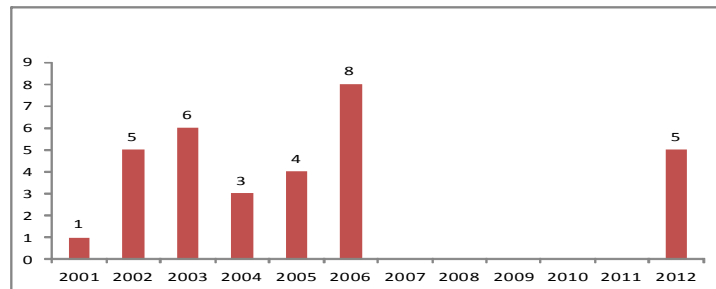
- ▶ 2012년 말레이시아는 총 5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이는 2006년 이후 다시 발생한 것이며 대부분 철강제품에 부과되었음.
- ▶ 2012년 말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 · 대만 · 인도네시아 · 중국 · 터키산 선재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하였으며, 2013년 초에는 말레이시아 기업인 Perstima가 한국 및 중국산 전기주석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청원하였음.
 - 2012년 10월 22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의 포스코(Posco)에 3.03%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반면, 인도네시아의 PT Ispat Indo사, 중국의 Jiangsu Shangang사와 Jiangsu Yonggan사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말레이시아의 전기도금 주석강판 주요 생산업체는 Perstima사가 유일하며, 한국 및 중국 철강기업과 경쟁하고 있음.
- ▶ 이와 같은 말레이시아 현지 철강 생산 · 제조업체의 외국계 철강기업에 대한 반덤핑 제소 배경은 △ 최근 중국 및 한국산 철강 수입 급증 △ 말레이시아 철강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개입 △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의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함.
 - 2012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철강 수입규모를 보면, 중국이 12억 2,597만 링깃(≒ 4억 288만 달러)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이 8억 8,959만 링깃(≒ 2억 9,234만 달러), 한국이 6억 4,327만 링깃(≒ 2억 1,139만 달러) 순임.
 - 말레이시아의 철강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Lion 그룹의 경영악화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은 다운스트림 분야인 2, 3차 생산품에만 주력하고 있어 관련 분야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일산업의 경우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 ▶ 말레이시아 정부의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는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 철강기업은 변경된 수입제도를 파악하여 조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해야 함.

1.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제소 현황

■ 2012년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제소는 총 5건으로 대부분 철강제품에 부과된 것임.

- WTO 반덤핑 통계에 따르면,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제소는 증가 추세에 있다가 이후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2년에 다시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짐(그림 1 참고).

그림 1.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제소 건수(2001~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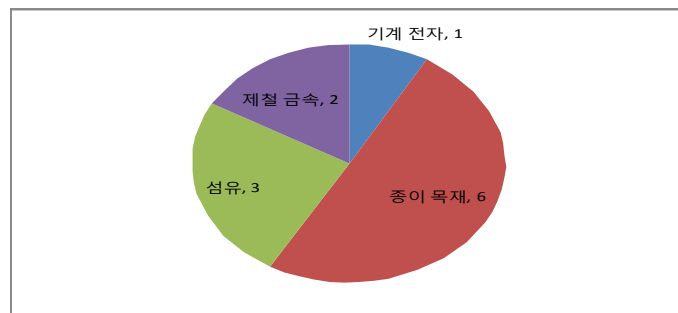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 2012년 말레이시아가 WTO에 보고한 반덤핑 조치 현황에 따르면, 선재강,¹⁾ 열연코일²⁾ 등의 철강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가 대부분임.

■ 2013년 누적 기준 말레이시아는 한국에 대해 12건의 반덤핑 조사 개시를 신청한 바 있으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음.

- 품목별로 살펴보면 종이 및 목재가 가장 많이 제소되었고, 제철금속 분야의 경우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건씩 제소됨(그림 2 참고).

그림 2.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대한국 반덤핑 제소 현황(2001~13년)



자료: 무역위원회 및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통계를 취합하여 저자 정리.

1) 전선선, 못, 자전거의 포크, 와이어 로프 등의 재료인 강봉(steel bar)을 의미함.

2) 강(Steel) 덩어리(슬라브)에 압박을 가하여 일정한 두께와 폭으로 만든 것을 높은 온도상태에서 가공(압연)한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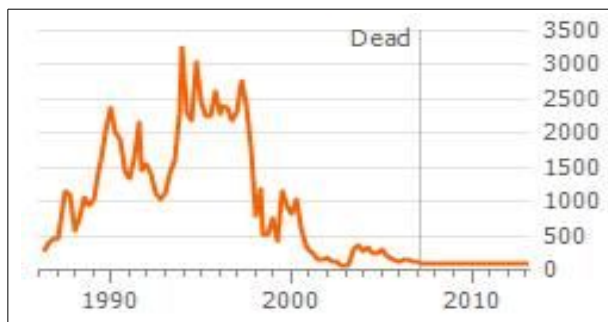
2.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내용

가. 주요 내용

■ 2012년 6월 25일 말레이시아의 Amsteel Mills사가 외국산 선재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말레이시아 정부에 요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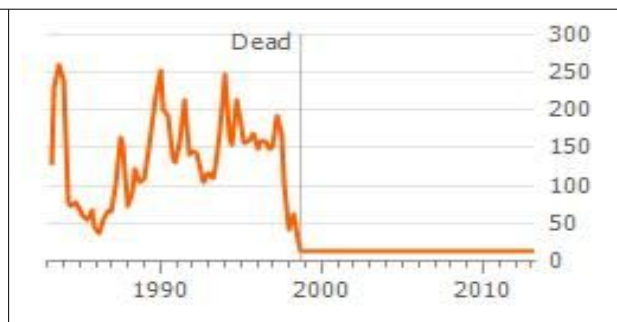
- Amsteel Mills사는 Lion Diversfied Holdings의 계열사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선철,³⁾ 경철, 철합금, 주괴,⁴⁾ 파일용 강판 등을 생산하고 있음.
- Amsteel Mills사의 최근 시장가치와 총 수익지수가 하락하는 추세임(그림 3 및 그림 4 참고).
- 이에 따라 Amsteel Mills사는 해외 경쟁사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통해 말레이시아 선재 시장을 주도하고자 함.

그림 3. Amsteel Mills사의 시장가치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그림 4. Amsteel Mills사의 총 수익지수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 2012년 10월 22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소 대상국의 선재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표 1 참고).

- Amsteel Mills사의 반덤핑 제소 당시와는 달리 조사대상 범위가 변경되어 탄소 함유 60% 미만의 연강제품만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됨.
 - 인도네시아의 PT Ispat Indo사, 중국의 Jiangsu Shangang사와 Jiangsu Yonggan사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반면 일부 터키 업체에는 33.62%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대만 일부 기업에도 25.20%의 관세를 부과함.
- 한국의 경우 주요 기업인 포스코(Posco)에 대해서는 3.03%의 관세를 부과한 반면 나머지 한국기업에는 25.20%의 과세를 부과함.
 - 포스코의 경우 물량 대부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재수출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짐.

3) 제강원료로 사용되거나 주철제품으로 만들기도 하는 무쇠라고도 함.

4) 금속 또는 합금을 한번 녹인 다음 주형(鑄型)에 흘려 넣어 굳힌 것으로 잉곳(ingot)이라고도 함.

표 1. 말레이시아의 선재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

HS Code	제품	대상국	수출업체/제조업체	관세(%)
7213.10 000 7213.20 000 7213.91 000 7213.99 000	선재강	대만	China Steel Corp	10.98
			Feng Hsin Iron & Steel Co.,Ltd	9.04
			기타	25.20
		인도네시아	PT Ispat Indo	0
			기타	25.20
		한국	Posco Co.,Ltd	3.03
			기타	25.20
		중국	Jiangsu Shagan Group Co., Ltd	0
			Jiangsu Yonggang Group Co., Ltd	0
			Maanshan Iron & Steel Co., Ltd	25.20
			기타	25.20
		터키	Diler Dis Ticaret	0
			기타	33.62

주: 2013년 2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자료: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

- 2013년 2월 말레이시아의 PERSTIMA(Perusahaan Sadur Timah Malaysia Bhd.)사는 한국 및 중국산 전기도금 주석강판에 대해 반덤핑을 제소함.

- 현재 말레이시아의 전기도금 주석강판 주요 생산업체는 PERSTIMA사 1곳이며 주로 일본의 JFE 철강(JFE Steel Corporation)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생산함.

○ PERSTIMA 지분율의 대부분을 일본기업이 차지함에 따라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⁵⁾

- 이에 일본 JFE 철강사의 경쟁사인 중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청원한 것으로 밝혀짐.

나. 배경

- 이와 같은 말레이시아 현지 철강 생산 · 제조업체의 외국계 철강기업에 대한 반덤핑 제소 배경은 △ 최근 중국 및 한국산 철강 수입 급증 △ 현지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말레이시아 정부의 개입 △ 현지 철강산업의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함.

- 한 · 아세안 및 중 · 아세안 FTA 체결로 말레이시아의 철강제품 수입규모가 증가하자 말레이시아 철강연맹(Malaysian Iron and Steel Federation)은 자국 철강산업의 위축을 염려함.

- 2007년 한 · 아세안 FTA 체결로 말레이시아의 한국산 전기 강판과 선재강에 대한 관세가 0%로 감소함(표 2 참고).

5) 현지기업인 Versalite Sdn Bhd가 32.85% 일본의 JFE Shoji 상사(JFE Shouji Trade Corporation)가 13.95%, JFE 철강(JFE Steel Corporation)이 11.23%, Mitsui&Co Ltd가 9.54%로 일본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 말레이시아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율(2006~12년)

(단위: %)

품목	HS code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주석강판	721012	15	10	8	0	0	0	0
선재강	721310	15	10	8	5	0	0	0

자료: 한아세안 FTA통합정보서비스.

- 2010년 중·아세안 FTA로 중국·말레이시아 간 전기강판과 선재강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표 3 참고).

표 3. 말레이시아의 중국산 주요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율(2006~12년)

(단위: %)

품목	HS code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주석강판	721012	15	8	8	5	0	0	0
선재강	721310	4.8	3	3	3	3	0	0

자료: China FTA Network.

- 2011년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산 철강제품 수입이 2012년부터 감소하여 중국이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함(표 4 참고).
- 2012년 기준 말레이시아가 중국에서 수입한 주요 철강제품 규모가 12억 2,597만 링깃(≒4억 288만 달러)으로 가장 크며, 그다음으로 일본 8억 8,959만 링깃(≒2억 9,234만 달러), 한국 6억 4,327만 링깃(2억 1,139만 달러) 순임.

표 4. 말레이시아 주요 철강제품(HS 7210, 7213)의 국가별 수입액(2009~12년)

(단위: 백만 링깃)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백만 달러)*
중국	311.9	780.1	823.9	1,225.9(402.8)
일본	886.4	1,241.9	1,069.4	889.5(292.3)
한국	454.6	603.1	679.9	643.2(211.3)
대만	255.9	321.6	340.9	474.4(155.9)
인도	21.9	44.0	51.1	26.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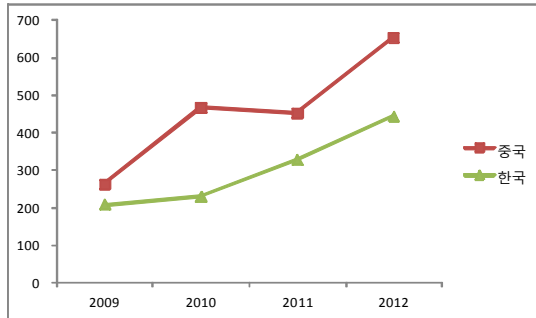
주: * USD-Ringgit 환율은 2013년 4월 기준임.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 2010년 이후 말레이시아의 한국과 중국산 주요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이 급증함(그림 5 및 그림 6 참고).
- 2012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중국산 철강제품(HS7210, 7213) 수입규모가 각각 6억 5,405만 링깃(2억 1,493만 달러)과 5억 7,193만 링깃(1억 8,795만 달러)으로 2009년에 비해 약 150% 증가함.
- 말레이시아의 한국산 철강제품도 2009년에 2억 889만 링깃(6억 8,646만 달러) 규모의 전기강판 수입이 2012년에 4억 4,395만 링깃(14억 5,895만 달러)으로 증가하고, 선재강도 2009년에 2억 4,304만 링깃(7억 9,869만 달러)에서 3억 4,193만 링깃(11억 2,368만 달러)으로 수입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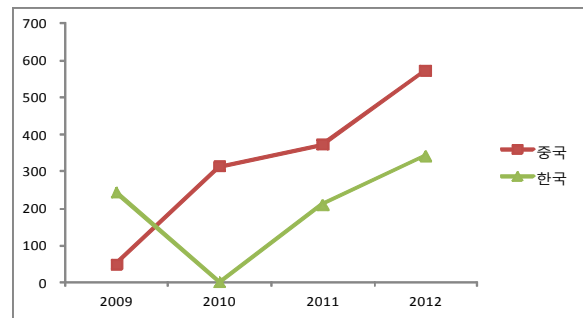
- 이에 말레이시아 철강연맹(Malaysian Iron and Steel Federation)은 정부에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요구하였으며, 정부는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임.⁶⁾

그림 5. 말레이시아의 전기강판 수입 추이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그림 6. 말레이시아의 선재강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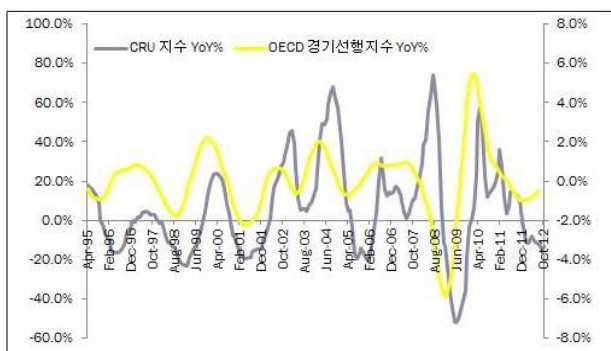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 세계 철강산업 경기가 하락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말레이시아 현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자국 철강산업 보호 기조가 강해짐.

- 2012년 세계 철강시장에 대한 CRU⁷⁾ 지수는 세계경기선행지수와 유사하게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그림 7 참고).
- 품목별로는 판재류와 봉형강류 지수가 각각 6.9%, 12.1% 하락, 스테인리스는 4.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8 참고).

그림 7. 세계경기선행지수와 CRU 지수



자료: KoreaPDS, OECD, CRU 재인용.

그림 8. 제품별 CRU 철강가격지수



자료: KoreaPDS, CRU 재인용.

6) The Star(24 January, 2013).

7) CRU은 광업, 철강산업, 비료산업에 대한 컨설팅 그룹으로 광업, 철강 등의 시장가격을 분석한 후 해당 산업의 경기(景氣)를 대표하는 CRU 지수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세계 철강시장의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함.
- 2012년 기준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철강 생산규모는 7억 878만 톤인 데 비해 말레이시아는 686만 톤임(그림 9 참고).
- 2000년대에 들어 말레이시아의 철강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다시 증가한 소비량도 1990년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10 참고).

그림 9.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의
연도별 철강 생산 규모(2007~12년)

(단위: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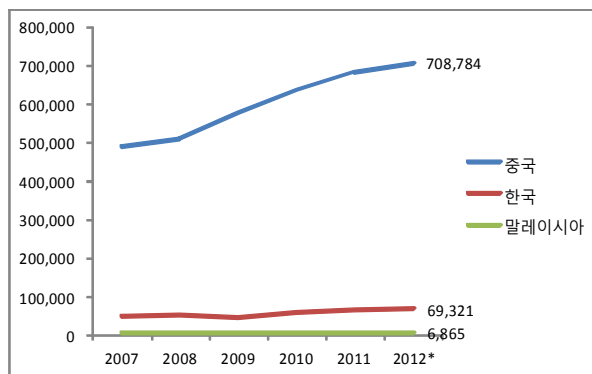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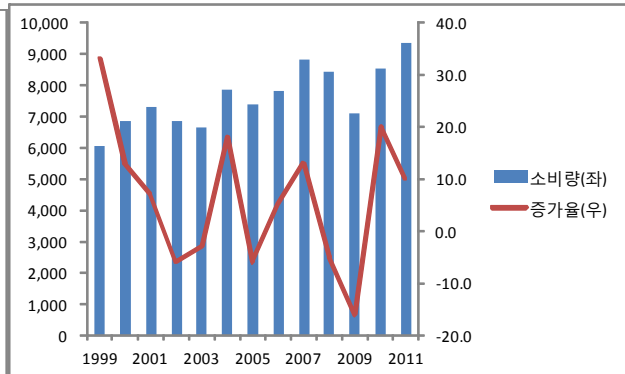


그림 10. 말레이시아의 철강 소비량 및 증가율

(단위: 천 톤, %)



주: * 추정치.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

자료: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연맹(MISIF).

- 게다가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Lion 그룹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표 5 참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함.
- Lion 그룹 산하의 철강 계열사인 Amsteel Mills사는 시장가치가 하락하면서 외국산 선재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을 제소하였고 열연코일을 독점한 Megasteel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모(母)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Megasteel사의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열연코일의 연 생산량은 240만 톤이나 현재 연간 생산량이 120만 톤에 불과한 실정임.⁸⁾

표 5. Lion 그룹의 재무 현황

분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총이익	29.08%	17.14%	21.55%	9.52%	8.12%
영업마진	-2.71%	14.28%	22.31%	10.72%	5.34%
세전수익	-4.25%	-46.18%	16.54%	-2.28%	-15.25%
순이익률	-6.08%	-49.93%	12.09%	-4.07%	-16.44%
총자산이익률	-0.41%	-18.25%	5.48%	-1.52%	-7.91%
자기자본이익률	-0.87%	-34.39%	11.09%	-2.82%	-14.81%

자료: One Source. Reuter.

8)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www.globalwindow.org).

- 또한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은 1차 생산품인 제선, 제강 분야가 취약한 반면 2, 3차 철강제품 생산에만 주력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은 1차 생산 공정분야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코일 생산의 경우 독점기업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됨(표 6 참고).
 - 열연코일, 강판 부문은 1개 사(社)가 독점함에 따라 자국 내 시장 가격이 외국계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현지기업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음.
 - 이에 열연코일과 강판을 공급받는 말레이시아 기업들은 저렴한 중국산 철강제품이나 품질 좋은 한국, 대만 등의 철강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⁹⁾
 - 반면 2차 생산품인 봉형강류와 판재류에 대한 말레이시아 기업간 상호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표 6. 말레이시아 철강산업 구조 현황

분류		품목	기업 수
1차 생산	환원철 제품	직접환원철(DRI)	1
		브리켓 철(HBI)	1
	연주공정제품	빌릿(Billets)	6
		블룸(Blooms)	1
		슬래브(Slabs)	1
코일/최종재	코일제품	선재강	51
		열연코일	1
		냉연코일	2
		강판(Plates)	1
2차 생산	봉형강류	철망	40
		경질신선 (Hard Drawn Wire)	40
		볼트, 너트	15
		못	14
		용접봉	10
		기타	6
	판재류	철근 제품	31
		양철	1

자료: Icapitaleducation.biz.

9) 현지기업과의 인터뷰(2013년 4월 15일).

3. 전망 및 시사점

■ 말레이시아 정부의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는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컨설팅사에 자문을 구하고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등 여러 노력을 강구함.
- 보스턴 컨설팅사는 1) 말레이시아 철광석 채굴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 유인, 2) 수출입 관련 제도 재정비, 3) 관련 기업, 연구소, 정부부처를 통합한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위원회(MSC: Malaysia Steel Council) 설립 등을 제안함.
- 2013년 1월 22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18개 철강 수입품에 대한 면세를 잠정 중단하고 임시승인서(TCOA: Temporary Certificate of Approval) 발급도 중단한다고 발표함.¹⁰⁾
- 한편 2013년 5월 5일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재집권을 위한 여당의 인기 영합주의 정책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13년에 말레이시아의 철강수입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고 조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제조업 면허 발급, 수입관세 면제, 수입관세 인하 등의 혜택으로 외국계 기업에 다소 유리하였던 2009년의 ‘말레이시아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조치’가 2013년에 ‘일부 품목 면세제도 폐지’, ‘임시허가증 발급 중단’으로 변경되어 수입인증제도가 강화됨.
- 임시허가증 발급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국제통상부가 현재 발급 과정에 있는 기업들에 6개월간 유예를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기업은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조건에 대해 숙지하여 조속히 처리해야 함.

■ 우리 정부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 혹은 WTO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한국·말레이시아 간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거나 WTO 같은 다자기구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음.
- 양자간 협상 채널을 마련하여 한국-말레이시아 간 FTA 체결 전에 말레이시아 자국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기업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협상안을 마련해야 함. **KIEP**

10)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www.miti.gov.my).